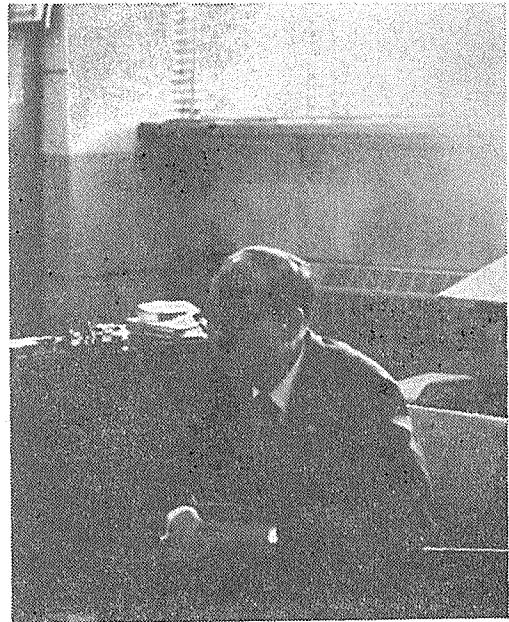


産業界를 이어온 橋梁

康明順 博士



“저 말고도 훌륭한 분이 많을 텐데……”하며 科學技術賞 후보자 물망에 오른 것을 겸손해하시는 康明順博士는 후리후리한 키에 로이드 안경을 쓰신 멋쟁이 紳士다. 또한 일찌기 23對 1의 관문을 통과하고 京城帝大 理工學部를 卒業하신 秀才.

“理論도 중요하지만 實社會에 적응할 수 있는 技術者를 양성하는 것이 工科教育의 最善策이 아니겠느냐”면서 韓國 機械工業株式會社에서의 8년간 實務 경력을 피력하신다.

約 20년간 서울大學校, 仁荷工科學校, 漢陽大學校 工科學에서 機械工作法, 工作機械, 切削理論, 塑性理論 등을 講義하여 後進養成에 힘쓰는 한편 現場技術者의 參考書와 工業教育用 檢認定教科書 등 8種을 執筆한 精力家이다.

“一定 기간 동안 선반 일종에 대해 각「메이커」의 品質과 성능을 調査했더니 거의 태반이 K·S 선반 규격 2급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은 韓國 표준형 선반의 3가지 「모델」을 구상하여 設計와 製作을 2년 간에 걸쳐 완성했지요.” 康박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熱意를 띄기 시작하면서 産學協同의 礎지를 業界에서 진면목하게 받아들여 줄 것을 당부한다. 外國技術을 도입함에 있어서도 도입 그 자체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더욱 研究 發展시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大學教授를 活用할것을 強調하신다. 精密工作機械나 油壓驅動裝置의 國產化 또한 塑性加工法에 의한 「니이틀베어링」의 生産 等도 알

고 보면 産學協同에 의해 實現된 것이란다.

歐美 學界 技術界를 두루 살펴보신 경험을 살려 康박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다.

外國의 境遇 자기가 손수 집을 設計하고 建築하는例가 허다하다는 것. 그만큼 一人一技가 보편화되어 있다면서 “生計를 유지하고 직장을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趣味로서의 기술을 가질수 있는 여유있고 실용성있는 科學教育이 어렵다”면서 外國과 같이 政府의 補助가 必要함을 主張하신다. “국고비로 공부한 學生들이 卒業後 1~2년 現場에 나가 그들의 知識을 活用하여 그 技能이 몸에 배게 되면 다른 職場으로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國家가 배풀어 준 혜택에 보답할 의무도 있고 하니깐요.”

大學工科教育에 있어서도 現場實習을 強化하여 의무화 시킨다면 現場에 적합한 技術人을 더 많이 배출할 수 있을거라면서 “문제는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現場의 設備과 관리에 있다”고 지적하신다.

國際技能올림픽 大會에 出戰할 때마다 技能工을 인솔 지도하여 優秀한 成績을 거두게 하는데 큰 功을 세우신 康박사는 國內技能工에게도 인기가 대단하다.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談笑하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는 강박사님, 그래서인지 박사님의 유머와 재치는 學生들 간에서도 一品이란다. 康博士의 멋은 어디서나 풍겨지나 보다.